

보도 일시	<b>2022. 3. 18.(금) 15:30</b>	배포 일시	2022. 3. 18.(금)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전담반	책임자	서기관	박상희 (070-7871-5000)
		담당자	사무관	이광윤 (044-203-2555)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3년 5월 개관 목표로 준비 박차

- 3. 18.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전담반 현판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3월 18일(금) 오후 2시 30분, 인천 미추홀타워(송도동)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전담반(이하 전담반)’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2020년 12월에 출범한 전담반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축공사, 문자 관련 자료 수집, 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등 박물관 건립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사무실을 임시로 마련해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건립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의 협조를 받아 송도 현장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창의성, 소통성, 다양성 등 세계 문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2019년 11월에 착공했으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며 차질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공사 또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설치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개관과 함께 첫 번째로 선보일 전시 주제는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이다. 신의 형벌로서 인류에게 닥친 대홍수 이야기를 최초로 담고 있는 ‘췌기문자 점토판’, 문자 대중화와 인쇄술의 측면에서 인류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구텐베르크 42행 성서’ 등을 대표적으로 전시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문자’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 출신으로 송암 박두성이 만든 ‘훈맹정음’ 관련 점자 유물, 강화도와 관련된 ‘재조대장경’, ‘외규장각 의궤’,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등도 전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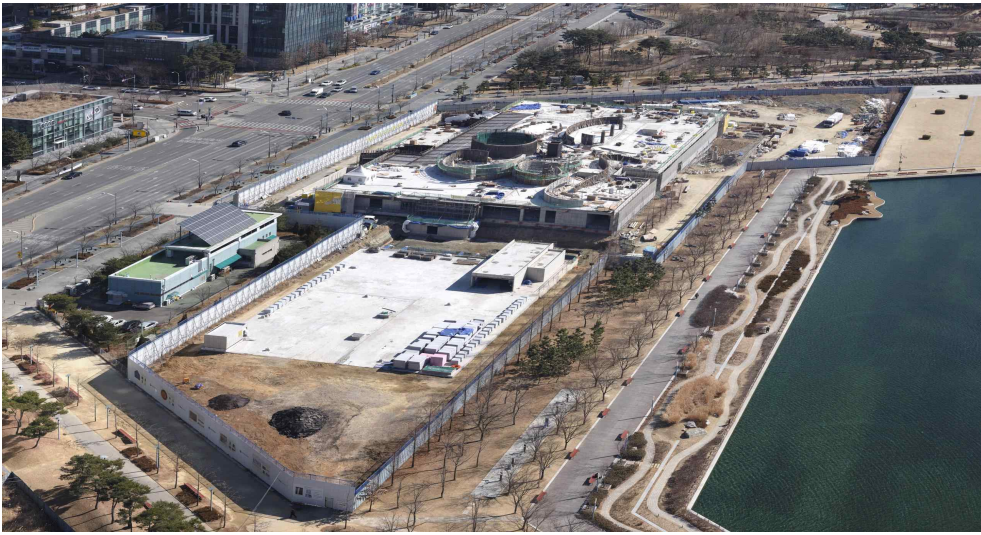
현판식에 참석한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3년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을 만들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현판식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 붙임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현장 사진 및 조감도
- 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개요 및 전시 내용



<사진 1> 건립 현장 사진 (출처 표기: 김태동 스튜디오)



<사진 2> 건립 현장 사진



<그림 1> 박물관 조감도



□ **건립개요**

- (건립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센트럴파크 내)
- (대지면적) 19,418㎡
- (연 면 적) 15,650㎡(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다목적강당, 기념품점, 주차장 등
- (추진일정) 2019년 11월 착공, 2023년 5월 개관 예정

□ **건립 비전 및 목적**

- (비전) 문자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열린 박물관
- (건립목적)
  - 인류 문명을 이끈 세계 문자의 가치(창의성, 소통성, 다양성 등) 확산
  - 세계 문자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 이해 증진
  - 미래를 지향하는 디지털 중심 지식 문화산업의 기반 마련

□ **전시 내용**

- (주제) 문자와 문명의 위대한 여정
- (방향) ‘소통(사맛다)’을 연출 중심 개념으로 설정
  - 내용 ⇒ 세계문자와 문자문화, 문명을 비교문화의 시각에서 조명
  - 형식 ⇒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주제 개발 및 이야기 중심 유물 선정
  - 연출 ⇒ 어렵고 평면적인 전시품을 쉽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표현
- (구성) 프롤로그, 1부(길을 열다), 2부(문화를 만들다), 에필로그

구분	주 제	주요 내용
<b>프롤로그: 위대한 발명</b>		
	1. 소리에서 문자로	태초의 소리로부터 발생한 문자
	2. 인류, 삶의 기억	그림은 인류의 첫 문자 기록
<b>1부: 문자, 길을 열다</b>		
	1. 선사에서 역사로	쌔기문자
	2. 나일의 선물	이집트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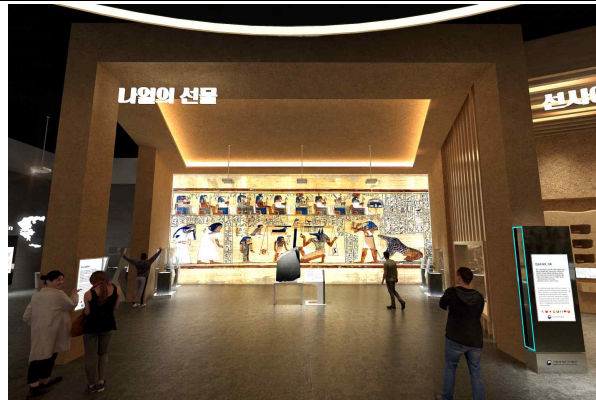
3. 바다를 따라 세계로	페니키아문자, 그리스문자, 라틴문자 등
4. 사막을 건너 초원으로	아랍문자, 소그드문자, 만주문자 등
5. 다양한 문자의 공존	브라흐미문자, 데바나가리문자, 타이문자 등
6. 사라진 문자와 문명	마야문자
7. 문자가 간직한 오랜 역사	한자, 가나, 쯤놈 등
8. 문자 창제의 원리를 밝히다	한글
9. 손으로 읽는 글	점자(훈맹정음)

**2부: 문자, 문화를 만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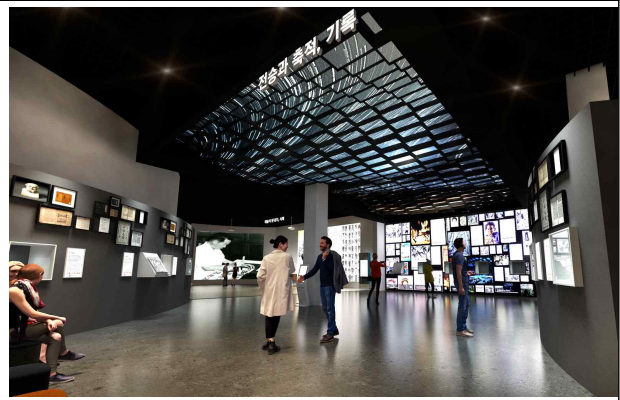
1. 세상을 바꾼 기술, 인쇄술	인쇄술을 통해 문자의 대중화 실현
2. 소통하고 공유하는 믿음과 지식, 번역	지역 문명의 소통과 확산을 이끈 번역
3. 문자로 전하는 인류의 흔적, 기록	지식의 전승과 축적을 대표하는 문자 기록
4. 문자를 담는 그릇, 매체	문명을 이끌었던 숨은 조력자 종이 등
5. 예술이 된 문자 서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서체의 역사

**에필로그: 내일의 문자**

1. 문자에서 다시 그림으로	디지털시대 이모티콘 등의 그림문자
2. 기술과 함께하는 문자	언어 문자의 장벽을 기술로 극복



<그림 1> 나일의 선물



<그림 2> 문자로 전하는 인류의 흔적, 기록